



## [동양미술사] 외연의 확장, 그리고 도약 동양미술사 연구(2009~2012년)의 회고와 전망

Extension of Denotation, and Leap: A Review and Prospect for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2009~2012)

---

저자 (Authors)	임영애 Lim, Young-ae
출처 (Source)	<a href="#">역사학보 219</a> , 2013.9, 397-418(22 pages) <a href="#">The Korean Historical Review 219</a> , 2013.9, 397-418(22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역사학회</a> THE KOREAN HISTORICAL ASSOCIATION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4349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43496</a>
APA Style	임영애 (2013). [동양미술사] 외연의 확장, 그리고 도약. 역사학보, 219, 397-41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6:0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외연의 확장, 그리고 도약: 동양미술사 연구(2009~2012년)의 회고와 전망

임 영 애\*

- I. 머리말
- II. 연구동향 개관: 단행본, 전시회, 학회, 학술대회
- III. 깊어지는 연구: 중국미술사
- IV. 연구시야의 확대: 일본미술사
- V. 영역의 확장: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미술사
- VI. 맺음말: 평가와 과제

## I. 머리말

『역사학보』에서 동양미술사에 따로 지면을 할애한 것은 2008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동양미술사 회고와 전망은 2008년의 뒤를 이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의 연구 성과가 그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 연구된 논저는 필자가 대략 산출한 숫자만도 157편에 달하는데, 이 중 저서가 10권, 도록 10권, 논문은 137편이다. 2007~2008년 2년간의 동양미술사 연구 성과가 60여 편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이후 4년간의 논저 157편은 숫자상으로도 분명 증가 추세이다. 이들 중 저서의 경우는 한국미술을 함께 기술한 경우도 포함하였지만, 도록과 논문은 동양미술만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만을 헤아린 것이다. 이들 연구논문들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총설논문 5편, 중국미술사 80편, 일본미술사 11편, 인도미술사 10편, 중앙아시아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부교수

미술사 6편, 동남아시아미술사가 25편이다. 역시 중국미술사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분야는 동남아시아미술사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일본,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해당 지역의 미술만을 집중해서 다룬 논저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동양미술이 중심이면서 한국미술과의 관계성을 일부 논의한 경우는 포함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지면관계상 제외하였다. 아울러 동양미술사 관련 서적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을 위한 미술사 서적과 학위논문도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알려둔다. 이 글에서는 동양미술을 지역에 따라 분류하고, 그 안에서 주제에 따라 다시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검토하려 한다. 제한된 지면에 4년간 150여 편 연구 성과를 회고하려 하니 언급하지 못한 논고가 많다. 또 4년간 동양미술사 분야의 연구 경향이 잘 드러나는 논고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일부 좋은 논문의 자세한 논평이 생략되거나 혹은 누락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 II. 연구동향 개관: 단행본, 전시회, 학회, 학술대회

이 시기 연구 중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동양미술사 관련 저서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총 10권의 관련저서가 출간되었는데, 이 중 4권은 해당 지역 유물에 집중하여 시대별 흐름과 특징 등을 살펴본 것이다(양은경 2010, 고희련 2011, 방병선 2012, 김인규 2012). 이들 저서 중 중국 산동성 불교조각만을 소재로 다루었거나(양은경 2010), 중국, 동남아시아 도자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저서(방병선 2012, 김인규 2012)는 이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기초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과거 번역서에 의존하였던 중국도자사 분야의 경우 국내 필자에 의한 단행본이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중국 도자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연구자가 모여 각국 근대미술사의 현주소와 함께 동아시아 미술의 ‘근대’와 ‘근대성’ 통찰의 총체성을 파악하고자 한 단행본을 비롯 하여(홍선표 편 2009), 충실적인 논문으로 ‘동아시아 미술사의 통합적 구축은 가능한가’에 관해 진단해 본 연구가 있다(홍선표 2010, 오가와 히로미쓰, 안재원 역 2010, 오카다켄, 윤철규 역, 2010). 동아시아 미술문화 패러다임의 구조와 시대상의 맥락에서 전체상을 밝히고 ‘한국미술사’를 재구축하는 과제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미술사의 통합적 구축을 실현하여야만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앞으로 관련성도가 더 많아 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국과 관련하여 중국미술 혹은 실크로드미술 연구에 꾸준히 매진해 온 연구자들이 그간의 결과물들을 엮은 단행본도 5권이나 출간되었다는 점도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김홍남 2009, 배진달(배재호) 2009, 권영필 2011, 강희정 2011, 한정희 2012).

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의 특별전시는 동양미술 분야에서 대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가장 잘 반영한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은 해를 거르지 않고 동양미술관련 특별전시를 마련하였다. “동서문명의 십자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2009.11.17.~2010.9.2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명청회화”(2010.12.7.~2011.1.30.), “일본 비와호 지역의 불교미술”(2011.11.20~2012.2.19.), “이스탄불의 황제들”(2012.5.1.~9.2.)의 전시를 비롯하여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베트남 마지막 황실의 보물”(2011.3.1.~5.15.), “중국섬서역사박물관 소장 당대 명품전”(2012.4.17.~6.17.)을,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적도의 황금왕국, 인도네시아(2012.7.30.~10.28.)” 전시가, 부산박물관에서는 “베트남, 홍강에서 메콩강까지”(2010.9.11.~11.14.), 서울대 박물관과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는 두 대학 박물관이 공동주최한 “중국 수목화의 법고창신(2012.2.1.~4.24.)” 전시가 있었다. 각 박물관의 특별 전시는 동양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의 유물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대중의 요구와 학계의 흐름을 잘 반영하였으며, 때마다 학계의 활력소가 되었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동남아시아 불교조각 연구의 현황과 시대별 예술양식 등에 관해 국내외 전문가

들과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책자로 펴내었다(『동남아시아의 불교조각』2011). 국내의 동남아시아 불교미술사 현황을 필두로, 푸난, 크메르, 드라바티 시대 불교조각의 특징, 태국과 기타지역의 불교미술 교류 현황 등 다양한 시기와 관점으로 동남아시아 불교조각을 조명하였다.

이 시기 학계를 회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일은 2010년 동양미술사학회의 발족이다. 잘 알려진 대로 지금까지 한국의 미술사학계에는 동양미술사 연구 성과만을 소개하는 전문적인 학회나 학술지는 없었다. 새롭게 발족된 동양미술사학회에서는 “동남아시아 예술의 재조명”(2011.9.3.), “중국 불교미술 연구의 최신 성과와 과제”(2012.10.13.) 등 전국규모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2012년에는 『동양미술사학』 창간호가 발간되어 국내 동양미술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양미술사학회’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발족된 동양미술사 전문연구 학회로서 여타 학회와 차별화되는 분명한 정체성 확보라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앞으로의 활발한 움직임을 기대한다.

한편 국내학술지에 동양미술 관련 외국연구자의 글이 한국어로 게재하는 일이 증가되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주목할 만한 중국과 일본학자의 논고를 한국학계에 소개하여 최근 동양미술사의 연구동향을 잘 빠르게 한국에 소개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아베 카츠히코, 허영은 역, 2009 외 11편의 논고), 한국어로 한국학계에 소개된 만큼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에 한정하여 함께 포함하여 살펴보려 한다.

### Ⅲ. 깊어지는 연구: 중국미술사

동양미술 중에서도 역시 압도적으로 연구 성과가 많은 분야는 한국미술과 관련이 깊은 중국미술사이다. 그 중에서도 명대부터 근대까지의 중국회화사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중국 고대미술, 특히 고분미술과 불교미술 분

아의 연구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중국미술사에서 고분미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구해 왔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정연의 논고가 있다(정연, 서윤경 역 2010). 435년의 분명한 연대를 지닌 산서성 대동의 沙嶺벽화고분을 통해 북위 平城期 회화를 살펴보기도 하고(서윤경 2010),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墓主圖나 花鳥圖와 같이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그 의미와 변천을 분석한 논고들도 눈에 띈다(한정희 2009, 김진순 2009). 이 외에도 중국에서 발견된 6세기 후반 경 소그드인 고분의 石葬具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구도 있었는데(정연, 서윤경 역 2009, 정완서 2010), 중국에 살았던 소그드인들이 자신의 고유 전통 유지와 중국화의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는지를 그들의 석장구에 표현된 조각을 통해 찾아보았다.

불교미술은 중국미술 연구에서 회화와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조각과 공예 분야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 17편에 달하는 불교조각 및 관련 사찰에 관한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는데, 모두 당 이전 시기의 불교조각에 관한 논문들이어서 이후 시기 불교조각으로 관심의 확장이 필요하다. 우선 석굴사원의 연구로는 하북성 水浴寺西窟의 분석을 통해 6세기 중국불교문화의 단면을 보려했다거나(김선경 2009), 석굴의 연화문이나 금강역사상과 같은 특정 제재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려 한 논문이 있다(소현숙 2012, 임영애 2009). 특정 지역 불교조각이나 사찰에 대한 소개와 연구로 한국 학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논고들이 적지 않으며(양은경 2011a,b, 2012a,b, 서남영 2011, 권강미 2010), '삼단팔각연화대좌'나 '優塡王式 불입상'과 같은 특정 도상의 형성과정과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려 한 연구도 있다(임영애 2010, 2012). 한편 통일기 신라시대 널리 유행했던 항마촉지인과 관련된 두 편의 논고가 있다. 인도의 항마촉지인 불상이 7세기 후반 중국 불교도들에게 해 '眞容'이라고 인식된 과정을 밝힌 글라든지(최선아 2009), 중국에서 촉지인불좌상이 유행하기 이전에 중국인들이 석가모니의 성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했는지에 관해 상세히 밝힌 논고도 있다(강희정 2010). 또한 당대의 미술을 통하여 그들이 묘사했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도 하였다(강희정

2011).

불교조각 연구가 한국과 연관이 깊은 당 이전 시기에 치중되어 있다면, 불교공예 연구는 주로 송, 요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불교공예는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는데, 주경미는 4년 동안 무려 9편의 중국 불교공예 논고를 집필하였다.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동아시아의 法舍利 신앙과 다라니의 불탑 봉안 의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였고(주경미 2011), 宋代 靜志寺塔 地宮의 불사리에 대한 연구라든지(주경미 2009c), 寧波 阿育王寺의 阿育王塔과 관련하여 이 탑을 공양하는 정치적 함의에 관해 집중한 일련의 논고(주경미 2009a,b, 2012)가 있다. 특히 아육왕 신앙과 아육왕탑은 양 무제를 비롯한 오월국왕 전류, 전홍숙 등이 전문성왕으로서의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이외에도 아육왕 신앙, 그리고 아육왕탑이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에 관해 살펴본 논고도 있어(소현숙 2011a,b, 최웅천 2011), 이 시기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아육왕 신앙과 탑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그간 크게 관심 받지 못했던 요대 탑과 관련된 논고도 눈여겨 볼만하다. 遼代 興宗 重熙(1032~1055)년간에 건립된 朝陽北塔에서 출토된 經幢을 새로운 법사리로 인식하였다든지, 탑내 사리공 분석을 토대로 요나라와 일본 헤이안 후기의 진언종 밀교의례간의 관계를 추적해 보기도 하였다(주경미 2009d,e, 김연미 2011). 이 밖에도 중국 법문사 자궁의茶具와 통일신라 차문화를 비교해 본다든지(이송란 2011), 몽골 출토 흉노시대 금속공예품 연구(주경미 2011)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공예 연구가 진행되었다. 불교회화 연구는 조각이나 공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1602년 간행된 仙佛서적인 『仙佛奇踪』과 『三才圖會』에 수록된 삽도에 관해 알아본 흥미로운 논고가 있었다(박도래 2011, 신광희 2012).

도자사 분야는 최근 중국도자사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방병선이 중국 도자기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동서 도자 무역의 일대 전환기인 17세기에 일어난 다양한 양상을 정리하였다거나, 명,청대 덕화요의 송자관음상, 조반니 벨리니의 <The Feast of the Gods>에 등장하는 명대 청화백자 연구 등 중국 명대 도자

기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는 시도가 있었다(방병선 2009, 2011, 2012). 또 지금까지 고려 도자 연구와는 시각을 달리하는 주목할 만한 논고도 있었다(장남원 2009). 오대나 송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중국 남방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요·금의 중국 북방으로 시야를 넓혀 다각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중국미술사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도출된 분야는 불교미술과 함께 역시 중국회화사이다. 중국회화사 연구에서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는 명청대이지만,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했던 금대 회화에 관한 논고가 세 편이나 있는 것도 이 시기 중국회화사 연구에서 눈여겨 볼만한 특징이다. 북송과 금대를 하나의 시대로 보고 장식고분의 벽화를 살펴본 논고도 있지만(지민경 2011) 관점을 달리한 글도 있다. 금대 회화가 북송이나 남송과 구별되는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금대 산수화의 전개양상과 특징에 관해 살펴본 박은화의 연구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박은화 2009), 이 밖에 당 태종의 昭陵의 六駿馬 부조를 토대로 금대에 그려진 <소룡육준도>에 주목한 논고도 발표되었다(장준구 2009).

원명대의 神仙圖에서 조형적인 측면과 그것의 배경을 이루는 종교적 사회적 측면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논고라든지(조인수 2009), 諸葛亮(181~234)이나 郭子儀(697~781)와 같은 역사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신화 인물로 변모되어 가며, 그들을 주인공으로 한 대표작들의 도상적, 양식적 특징은 무엇 인지를 도출해 낸 흥미로운 논문이 있다(장준구 2010, 김홍남 2011).

명말에 유입된 기독교미술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명말 기독교미술이 중국에서의 토착화된 최초의 기독교미술이라고 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견해도 있지만(윤인복 2012), 이와 상이한 의견도 있었다.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한 견해인데, 명말의 기독교미술이 새로운 화법을 유포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가 있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고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다(한정희 2011). 명청대 화훼화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홍상희 2012, 유순영 2012, 박효은 2012, 박도래 2012, 이주현 2012b, 오지영 2012). 또 명말의 초상화가 曾鯨(1565~1647)의 그림에 미친 명말 강남 문인의 미의식 검토를 통해 중경 초상화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논고라든지(정석범 2011), 明 萬曆년간부터 청대 중기까지 蘇州 일대의 민간 화사들의 僞造 書畫인 蘇州片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 소주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仇英 款 清明上河圖의 다양한 양태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이주현 2012).

청조의 황제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大一統 사상의 관철을 위해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였는데, 康雍乾 세 황제는 당시 제작된 이미지를 자신이 지향하는 군주로서의 품모를 선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음을 밝힌 의미 있는 작업도 있었다(정석범 2009). 또 건륭제의 西畫觀이 郎世寧(1688~1766)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논하였다(이주현 2009). 영남화와 삼걸의 일본체험 이후 변모된 그들의 출판 활동이나 회화는 당시 일본과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잘 반영한다는 의미있는 연구도 있었다(김용철 2009). 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도입된 근대 중국의 “미술” 개념이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본다거나, 1930년대 상해미술의 모더니즘 수용문제에 관해 다룬 연구도 있었다(김용철 2011, 2012).

중국미술사 연구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특히 불교공예와 명청대를 비롯한 근대 회화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그 주제에서 찾아 낼 수 있는 사회,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려 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중국회화사의 경우 신진연구자들의 논문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 인력이 점점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 IV. 연구시야의 확대: 일본미술사

이 시기 일본미술사는 근현대미술사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지만, 고대 불교미술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주제의 연구가 있었다. 일본 최초의 미술 도록인 『眞美大觀』이 근대 메이지 정부의 국가적 사업의 산물이라는 점을 밝힌 논고라든지(강희정 2009), 나라현의 히노쿠마데라 석탑을 통하여

일본 다층석탑의 성립과 발전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신용철 2009)와 같이 연구시야가 확대되었다. 에도시대 초기 풍속화의 정교한 세부표현에 주목한다거나(에무라 도모코, 황빛나 역 2011), 셋슈(雪舟 1420~1506)가 중국 명 체류기간 동안 또는 귀국 이후 어떤 회화적 표현을 모색하였는지에 관한 연구(하타 야스노리, 윤철규 역 2012), 18세기 일본의 서양회화 수용에 있어서 南蘋派, 명말 화가 吳彬, 청대 화가 冷枚 등과의 유사성에 관심을 두고 에도시대 서양회화 수용의 양상을 살펴본 연구 등과 같이 일본인 연구자의 연구가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기도 하였다(고지마 카오루, 정다움 역 2009).

일본미술사의 연구시야 확대는 특히 근현대미술사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우선 아시아를 일본과 중국, 인도를 축으로 하는 하나의 권역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아시아는 하나’라는 선언에 도달하게 한 오카쿠라 텐신(1862~1913)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김용철 2011). 물론 그간 텐신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이 논고는 각도를 달리하여 그의 인도인식이 그가 세운 명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그밖에도 재조선 일본인 화가 구보타 텐난(久保田天南)의 조선 내에서의 활동상, 화풍의 특성을 알아본다거나(황빛나 2012), 근대 일본 회화가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그려왔는가라는 표상의 문제를 기존의 식민주의 논의가 아닌 1910년대 일본 서양화단의 형성과정 속에서 살펴보기도 하였다(김정선 2012).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과 접촉한 근대 일본의 시각문화 가운데 포스터나 표지화에 대해 검토한 논고라든지, 만주국(1932~1945)이 지닌 중층적 성격을 일본인 화가의 작품과 언설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연구는 일본미술사 연구의 시야를 한층 넓힌 의미 있는 연구이다(김용철 2010, 최재혁 2009).

## V. 영역의 확장: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미술사

동양미술사 연구 성과가 양적으로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도, 중앙아시아

아, 동남아 미술사와 같은 중국 밖의 지역 미술사 연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여는 동남아시아 미술사가 했지만, 인도나 중앙아시아 미술사 연구 성과도 예전에 비해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양적으로도 많아졌다.

인도미술사는 인도에서 시작된 범천 도상이 서역과 중국을 지나면서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를 살펴본 연구(김정희 2011), 降魔成道 佛傳圖나 굽타시대 사르나트 불전도(유근자 2010, 고정은 2009), 彌勒倚坐像(주수완 2011)과 같이 불교 도상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되었다. 한편 적어도 밀교 출현 이전의 불교미술에 있어서는 '도상학이 중요하다'라는 전제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한 논문이 있다(이주형 2011). 이 글은 특히 불교미술 전공자들에게 '도상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인도 佛典의 여러 문헌과 미술에 보이는 제석굴 설법도를 통해 인도미술에서 이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도 살펴보았다(이주형 2009). 인도 고대미술에서 영역을 보다 확장하여 인도 근대미술에 관해 주목한 논고도 있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인도 회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라자 라비 바르마(Raja Tavi Varma)와 아비닌드라나트 타고르(Abanindranath Tagore)의 회화세계를 살펴봄으로써 두 작가의 영향으로 인도의 전통적인 여성상이 확립되었고, 나아가 민족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구하원 2009). 암리타 쉐르길(Amrita Sher-Gil 1913~1940)이라는 인도 여성 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근대 인도의 미술을 이해하려 하기도 했다(구하원 2010). 인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출토된 고대 금공예품에 보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적한 연구성과도 있었다(주정미 2012).

중앙아시아 미술사 연구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양주 番禾縣 瑞像의 형성과 복제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도상 판명의 문제를 재검토한 연구라든지(김혜원 2011), 둔황 막고굴 제220굴 서방정도변의 분석을 통해 '당대 기록에 보이는 그림의 명칭에서는 정도 경전 중 특정 경전과의 연관 속에서 이러한 그림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제220굴의 서방정도변이 하나의 경전에 의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은 적절하다(김혜원 2010). 신진 연구자에 의한 단단 월

릭 회화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강수현 2011). 단단 월릭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호탄국의 다른 유적지와는 구별되는 인도 밀교적 요소와 서아시아 요소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 베를린 아시안 아트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는 투르판 출토 불화의 소의경전이『佛說預修十王生七經變相圖』이라고 본 논고라든지(조성금 2010), 위구르 불교사원지인 北庭 傳 西大寺 벽화(조성금 2011), 베제클릭 제20굴 벽화(조성금 2012)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여러 가지 연구의 어려움으로 중앙아시아 미술사 연구자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신진 연구자의 등장은 고무적이다.

동양미술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성과는 동남아시아 미술사에서 이루어졌다. 2008년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동남아 미술사 논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자그마치 25편이나 있다. 연구자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동남아시아 미술사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데에는 서강대 동아연구소와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의 인문한국사업단들의 동남아 연구가 큰 기여를 하였다.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꼽을 만한 것으로는 동남아 불교조각에 남인도보다 사르나트의 조각이 먼저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본 논고가 있다(강희정 2009, 2010a,b, 2011a). 푸난과 산동의 불교조각에 남인도보다 중인도 사르나트 양식이 더 많이 보인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지금까지 동남아 불교조각의 남인도 영향을 강조해왔던 견해에 새로운 관점을 제기한 글이다. 또 중국의 도자기가 동남아 각지에 미친 영향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 논고도 여러 편 있다(김인규 2011a, 2011d, 2012b).

또 이 시기 동남아 미술사 연구는 고대 동남아시아의 귀걸이 전통과 그 영향(주경미 2012),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의 요지와 도자기(김인규 2010, 2011c, 2011e, 2012a), 청동북의 기원과 발전 양상(김인규 201b), 싱가포르 박물관(강희정 2011b),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미술(고정은 2011b), 앙코르와트 32지옥도(고정은 2011a), 동남아시아의 불전도상(유근자 2010, 고정은 2012), 인도네시아 근대 모스크 건축(구하원 2011)과 같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관심에 두지 않았던 분야까지 연구자 관심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이처럼 특히 동남아시아 미술

사 분야의 경우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VI. 맺음말: 평가와 과제

2009~2012년 기간의 동양미술사 연구는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우선 연구 성과의 양이 크게 늘었다. 중국, 일본, 인도, 중앙아시아 미술사의 성과도 골고루 증가하였지만,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데에는 동남아시아 미술사 연구가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시기에는 동양미술사학회도 발족하였으며, 규모가 큰 동양미술사 관련 전시회도 크게 늘어 모두 아홉 차례나 열렸다. 적어도 1년에 두 차례 이상의 전시가 있었던 셈인데, 이러한 결과는 분명 동양미술사에 대한 학계와 대중의 관심이 많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우리 미술사 학계의 독창적인 ‘동아시아론 확립’을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 이는 동양미술사 연구의 중요한 공헌이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중국미술사의 연구는 점점 깊어져 의미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천착한 연구 성과들이 많아졌다. 특히 근대미술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는데, 이는 일본미술사도 마찬가지이다. 일본미술사 연구시야가 확대되어 근대미술뿐 아니라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고대 다층석탑이나 근대 일본의 그래픽디자인, 재조선 일본인 화가인 구보타 텐난과 같은 특이한 주제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인도미술사 분야의 경우 불교미술에서도 상학의 비판적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한 연구라든지, 인도 근대회화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동남아시아 분야에서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연구가 진일보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미술사 분야가 출발이 늦었고, 기년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어 기대를 충족시키는 논문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다. 동남아시아 미술사 연구자의 숫자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점차 늘어나리라고 기대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자료를 발

굴하고 탐구하려는 그들의 부단한 노력이 앞으로 동남아시아 미술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 믿는다.

한국미술사 연구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동양미술사 연구가 그 해답의 열쇠를 쥐고 있을 때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4년간의 동양미술사 연구는 한국미술사 분야에 의미 있는 발산을 하였으며,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학계가 기대하는 것은 한국미술사에 도움을 주는 동양미술사 연구가 아니며, 이를 넘어서 각 해당 지역의 학계가 주목하는 의미 있는 논고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양미술사 연구의 세계화가 필수이다. 물론 동양미술사 연구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진정한 세계화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와의 '소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한국에서 동양미술사 연구의 외연은 크게 확장되었다. 외연이 크게 확장된 만큼 단순한 자료조사나 정리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논고들도 적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최근 동양미술사 연구는 분명 도약하였으며, 몇몇 연구자들의 연구는 이미 '세계화'의 반열에 들어서 세계와의 '소통'의 단계에 있기도 하여서 긍정적이다. 이처럼 동양미술사 분야는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세계와의 '소통'을 위해 동양미술사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새로운 통합적 시각과 방법의 모색이며, 국내외 선학들의 연구 업적을 충분히 수용하여 발전시키려는 후학들의 노력이다.

(투고일 : 2013. 8. 5 심사시작일 : 2013. 8. 6 심사종료일 : 2013. 8. 31)

주제어 : 동양미술사, 중국미술사, 일본미술사, 인도미술사, 중앙아시아 미술사, 동남아시아 미술사, 외연의 확장

Keywords : East asian art history, Chinese art history, Japanese art history, Indian art history, Central art history, Southeast Asia art history, Extension of Denotation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희정 2011, 『동아시아 불교미술 연구의 새로운 모색』, 학연문화사.  
 고혜련 2011, 『미륵과 도솔천의 도상학』, 일조각.  
 권영필 2011,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 두성북스.  
 김인규 2012, 『동남아시아 도자기 연구』, 슬과학.  
 김홍남 2009, 『중국 한국 미술사』, 학고재.  
 방병선 2012, 『중국도사사 연구』, 경인문화사.  
 배진달(배재호) 2009, 『연화장세계의 도상학』, 일지사.  
 양은경 2010, 『중국 산동성 불상』, 주류성.  
 한정희 2012, 『동아시아 회화 교류사』, 사회평론.  
 홍선표 편 2009, 『동아시아 미술의 근대와 근대성』, 학고재.

## 〈전시도록, 연구보고서〉

- 국립경주박물관 2011, 『베트남 마지막 황실의 보물』.  
 \_\_\_\_\_ 2012, 『중국섬서역사박물관 소장 당대 명품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동남아시아의 불교조각』.  
 국립제주박물관 2012, 『적도의 황금왕국, 인도네시아』.  
 국립중앙박물관 2009, 『동서문명의 십자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  
 \_\_\_\_\_ 201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명청회화』.  
 \_\_\_\_\_ 2011, 『일본 비와호 지역의 불교미술』.  
 \_\_\_\_\_ 2012, 『이스탄불의 황제들』.  
 부산박물관 2010, 『베트남, 홍강에서 메콩강까지』.  
 서울대학교·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2012, 『중국 수목화의 법고창신』.

## 〈논문〉

## ■ 총설

- 金理那 2009, 「동서양의 만남과 미술의 교류」 『미술사연구』 23.  
 다도코로 마사에, 박성희 역 2010, 「동아시아 民間 版畫考」 『미술사논단』 30.  
 오가와 히로미쓰, 안재원 역 2010, 「동아시아 미술사의 가능성」 『미술사논단』 30.  
 오카다켄, 윤철규 역 2010, 「전파돼온 미술, 요구되는 능력, 그리고 자신 - 불교 미술 연구를 주제로 한  
 동아시아 미술사 구축의 미래」 『미술사논단』 30.  
 흥선표 2010, 「동아시아 통합 미술사의 구상과 과제」 『미술사논단』 30.

## ■ 중국미술사

## 1. 회화

- 고혜련, 최덕경 2012, 「漢代 畫像石에 나타난 自然觀」 『중국사연구』 76.  
 김용철 2009, 「中國 嶺南畫派 三傑의 出版活動 및 繪畫에 관한 試論 -일본 체험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61.  
 \_\_\_\_\_ 2011, 「1930년대 상해미술의 모더니즘 수용」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  
 \_\_\_\_\_ 2012, 「근대 중국의 “미술” 개념과 1929년 전국미술전람회」 『개념과 소통』 9.  
 김진순 2009, 「중국 唐代 고분벽화의 花鳥畫 등장과 전개」 『미술사연구』 23.  
 김현정 2009, 「明代 繪畫 民間 收藏과 鑑定 關係」 『중국사연구』 61.  
 김흥남 2011, 「중국 〈郭子儀祝壽圖〉 연구 -연원과 발전-」 『미술사논단』 33.  
 도라 칭 2012, 「중국 회화에서의 초상화」 『미술자료』 81.  
 박도래 2011, 「『仙佛奇踪』 插圖 研究」 『미술사학연구』 269.  
 \_\_\_\_\_ 2012, 「鄒一桂(1686~1772)의 『小山畫譜』와 화훼론 연구」 『미술사연구』 26.  
 박아림 2012, 「중국 위진 고분벽화의 연원 연구」 『동양미술사학』 창간호.  
 박은화 2009, 「金代의 山水畫와 華北山水畫風의 傳承」 『미술사학보』 32.  
 박효은 2012, 「八大山人과 石濤의 花卉畫 비교 연구」 『미술사연구』 26.  
 서윤경 2010, 「북위 平城期 沙嶺 벽화고분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67.  
 신광희 2012, 「明代 화보류 羅漢 插圖의 流傳」 『미술사학』 26.  
 오지영 2009, 「清末 趙之謙(1829~1884)의 화훼화와 그 영향」 『미술사학연구』 261.

- 유순영 2012, 「明代後期 강남지역의 화훼원에취미와 花卉圖卷」 『미술사연구』 26.
- 윤인복 2012, 「16~17세기 중국의 宣敎미술」 『미술사학』 26.
- 이광수 2009, 「宋代 院體畫風の 形成과 藝術的 交流」 『문화사학』 32.
- 이주현 2009, 「乾隆帝의 西畫인식과 郎世寧화풍의 형성」 『미술사연구』 23.
- \_\_\_\_\_ 2012a, 「명청대 蘇州片 清明上河圖 연구」 『미술사학』 26.
- \_\_\_\_\_ 2012b, 「초기 嶺南畫派의 화조초충도 연구」 『미술사연구』 26.
- 장준구 2009, 「北京故宮博物院 소장 <昭陵六駿圖> 연구」 『미술사연구』 23.
- \_\_\_\_\_ 2010, 「明, 清代 시각문화를 통해 본 諸葛亮 圖像의 전개와 성격변모」 『미술자료』 79.
- 정석범 2009, 「康雍乾시대 ‘大一統’ 정책과 시각 이미지」 『미술사학』 23.
- \_\_\_\_\_ 2011, 「명말 會鯨양식의 형성과 문인적 미의식」 『미술사학연구』 269.
- 정연, 서윤경 역 2009, 「北周 康業墓 石寢床의 새로운 해석」 『미술사논단』 28.
- \_\_\_\_\_ 역 2010, 「중국 미술사의 고분미술 연구사」 『미술사논단』 30.
- 정진희 2010, 「中国 불교의 九曜圖像 연구 - 당·송대 炽盛光如來圖像을 중심으로」 『CHINA 연구』 8.
- 조인수 2009, 「중국 원명대의 사회변동과 도교 신선도」 『미술사학』 23.
- 지민경 2011, 「北宋·金代 裝飾古墳의 소개와 기초 분석」 『미술사논단』 33.
- 何卯平, 소현숙 역 2010, 「나라박물관 소장 중국 寧波 불화 <十王圖> 연구 - 陸信忠筆, 陸仲淵筆 <시왕도>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10.
- 한정희 2009, 「중국분묘 벽화에 보이는 墓主圖의 변천」 『미술사학연구』 261.
- \_\_\_\_\_ 2011, 「명 말기에 전래된 기독교 미술과 그 양상」 『명청사연구』 35.
- 허명화 2010, 「漢代 畫像石에 반영된 祭祀藝術樣式 - 武梁祠堂樓閣拜禮圖를 중심으로 -」 『중국사연구』 65.
- 洪祥希 2012, 「명대 궁정화조화의 원형과 새로운 화풍」 『미술사연구』 26.
- 황금순 2011, 「西夏 水月 觀音圖의 圖像 해석」 『불교미술사학』 12.

## 2. 조각

- 강희정 2010, 「5~6세기 中國의 <降魔>敍事와 成道の 이해」 『미술사학연구』 266.
- \_\_\_\_\_ 2011, 「미술을 통해 본 唐 帝國의 南海諸國 인식」 『중국사연구』 72.
- 고혜련 2011, 「北魏 思惟像 圖像」 『중국사연구』 72.
- 권강미 2010, 「中國 唐代 鐵佛의 新例 - 維坊市博物館 및 平遙縣博物館 所藏品을 중심으로 -」 『미술자료』 79.

- 김선경 2009, 『河北 邯鄲 水浴寺西窟 研究』 『미술사논단』 28.
- 서남영 2011, 『北朝期 交通路를 통한 河北地方 白玉像의 地域性 考察』 『중국사연구』 73.
- 소현숙 2011, 『위진남북조시대 阿育王像전승과 숭배』 『불교미술사학』 11.
- \_\_\_\_\_ 2012, 『北齊皇室石窟과 睡蓮系蓮花文 - 北響堂石窟北洞과 中洞蓮花文의 淵源과 그 意味』 『중국사연구』 79.
- 양은경 2009, 『梁 武帝시기 불교사찰, 불교조각과 사회변화』 『미술사학』 23.
- \_\_\_\_\_ 2011a, 『남경지역 남조 금동불상에 대한 일고찰』 『CHINA 연구』 제11.
- \_\_\_\_\_ 2011b, 『북위 평성 永固陵·思遠佛寺와 풍태후 능침의 특수성』 『한국의 고고학』 16, 주류성.
- \_\_\_\_\_ 2012a, 『中國 北魏 平城, 洛陽지역 佛教寺刹의 분석과 鮮卑族 습속이 佛事활동에 끼친 영향』 『고문화』 80.
- \_\_\_\_\_ 2012b, 『중국 산동성 출토 동위~북제대 반가사유상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 38.
- 임영애 2009, 『중국 석굴의 금강역사-북위 후기 금강역사의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32.
- \_\_\_\_\_ 2010, 『곤륜산, 수미산, 그리고 삼단팔각 연화대좌 -중국 삼단팔각 연화대좌에 담긴 상징』 『강좌미술사』 34.
- \_\_\_\_\_ 2012, 『優填王式 불입상의 형성·북제 그리고 확산』 『미술사논단』 34.
- 주수완 2012, 『불탑에서 불상으로 - 중국 초기불상과 전통의 형성』 『동양미술사학』 창간호.
- 최선아 2009, 『眞容: 인도 보드가야 항마촉지인 불좌상에 대한 중국 당대(唐代) 불교도들의 인식과 수용』 『미술사와 시각문화』 8.

### 3. 금속공예, 도자기, 건축

- 강병희 2012, 『중국 고대 불탑의 기원과 발전』 『동양미술사학』 창간호.
- 김연미 2011, 『오나라 朝陽北塔 사리공과 진언증 如法尊勝法の 기원』 『미술사와 시각문화』 10.
- 김은경 2011, 『15세기 중기 중국 景德鎮窯 青花瓷 연구』 『강좌미술사』 37.
- 방병선 2009, 『17세기 중국 무역도자 연구 -유럽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33.
- \_\_\_\_\_ 2010, 『오대, 북송 주요요 청자 제작기술의 혁신과 전파』 『강좌미술사』 35.
- \_\_\_\_\_ 2011, 『명, 청대 덕화요 송자관음상 고찰』 『강좌미술사』 37.
- \_\_\_\_\_ 2012, 『조반니 벨리니의〈The Feast of the Gods〉에 등장하는 명대 청화백자』 『미술사학』 26.
- \_\_\_\_\_ 2012, 『중국 남북조시대 자기 계수호의 연원과 양식』 『동양미술사학』 창간호.
- 아베 카츠히코(阿陪克彦), 허영은 역 2009, 『사파비朝시기의 페르시아 陶器에 보이는 중국의 영향』 『미술사연구』 23.

- 양홍, 서윤경 역 2009, 「중국 漢唐시기도시건축과 생활미술품의 변천」 『미술사논단』 28.
- 이승란 2010, 「中國 法門寺 地宮 茶具와 통일 신라 茶文化」 『선사와 고대』 32.
- \_\_\_\_\_ 2011,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金蟬紋璫과 金步搖冠의 시원과 전개」 『고문화』 78.
- 장남원 2009, 「10~12세기 고려와 遼·금도자의 교류」 『미술사학』 23.
- 정완서 2010, 「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 미술 재고찰 -소그드인 석장구 도상을 중심으로-」 『중  
양아시아연구』 15.
- 주경미 2009a, 「고대 국왕의 진신사리 공양과 정치적 함의」 『인문사회과학연구』 10-2.
- \_\_\_\_\_ 2009b, 「北宋代 塔形舍利莊嚴具의 研究」 『중국사연구』 60.
- \_\_\_\_\_ 2009c, 「宋代 靜志寺塔 地宮의 佛舍利 再埋納과 莊嚴方式 研究」 『미술사학』 23.
- \_\_\_\_\_ 2009d, 「遼代 朝陽北塔 出土 經幢 研究」 『동양미술사학』 10.
- \_\_\_\_\_ 2009e, 「요대 八大靈塔 도상의 연구」 『중앙아시아연구』 14.
- \_\_\_\_\_ 2009f, 「쿠빌라이 칸과 대성수만안사의 백탑」 『미술사와 시각문화』 8.
- \_\_\_\_\_ 2010, 「남송대 정치 변동과 불사리장엄」 『미술사와 시각문화』 9.
- \_\_\_\_\_ 2011, 「8~11세기 동아시아 탐내 다리니 봉안의 변천」 『미술사와 시각문화』 10.
- \_\_\_\_\_ 2011, 「몽골 출토 흥노시대 금속공예품 연구」 『신라문화』 37.
- \_\_\_\_\_ 2012, 「吳越國王 錢鏐의 寧波 阿育王塔 공양과 그 의의」 『중국사연구』 77.
- 최응천 2011, 「中國阿育王塔舍利器의 特性과 受用에 관한 고찰 - 東國大博物館所藏石造阿育王塔  
을 中心으로 -」 『동양미술사학』 12.

## ■ 일본미술사

- 강희정 2009, 「『眞美大觀』과 일본 고대 불교조각」 『미술사논단』 28.
- 고지마 카오루, 정다움 역 2009, 「18세기 일본의 西洋繪畫受容: 중국의 文化的影響하에서」 『미술사  
연구』 23.
- 김용철 2010, 「근대 일본의 그래픽디자인과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의 수용」 『아시아문화』 26.
- \_\_\_\_\_ 2011,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의 인도 인식」 『일본사상』 21.
- 김정선 2012, 「1910년대 일본 근대 화단의 형성과 조선 -유야사 이치로(湯淺一郎), 후지시마 다케지  
(藤島武二)를 중심으로-」 『문물연구』 21.
- 신용철 2009, 「일본 다층석탑의 성립과 발전 - 나라현 히노쿠마데라 석탑을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  
문화』 8.
- 에무라 도모코, 황빛나 역 2011, 「에도 시대 초기 풍속화의 표현세계」 『미술사논단』 33.

- 최재혁 2009, 「1930·40년대 일본회화의 만주국표상」 『미술사논단』 28.  
 하타 야스노리, 윤철규 역 2012, 「셋슈의 중국회화 인식에 대하여」 『미술사논단』 34.  
 한보경 2010, 「고대 일본의 사찰과 조영 집단」 『불교미술사학』 9.  
 황빛나 2012, 「재조선 일본인 화가 구보타 덴난(久保田天南)과 朝鮮南書院」 『미술사논단』 34.

## ■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미술사

### 1. 인도

- 고정은 2009, 「인도 굽타시대 사르나트 불전도에 대한 일고찰」 『수원나부미』 1-2.  
 \_\_\_\_\_ 2011, 「불전미술에 나타난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하는 붓다’ 도의 성립과 전개」 『CHINA 연구』 제11, 2011.  
 구하원 2009, 「인도 근대 미술의 여성상과 민족주의(Nationalism)의 성장」 『미술사학연구』 262.  
 \_\_\_\_\_ 2010, 「암리따 웨르길과 근대 인도예술가의 분열」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  
 김정희 2011, 「梵天 도상의 형성과 전개 -인도에서 중국까지-」 『강좌미술사』 36.  
 유근자 2010, 「간다라 降魔成道 佛傳圖의 도상」 『강좌미술사』 35.  
 이주형 2009, 「인도 불교 문헌과 미술에 보이는 <제석굴 삼매/설법>」 『중앙아시아연구』 14.  
 \_\_\_\_\_ 2011, 「도상학은 정말 중요한가?: 밀교 출현 이전 불상의 존명 규정/판별에 관하여」 『미술사와 시각문화』 10.  
 주경미 2012, 「아프가니스탄 출토 고대 금공품에 보이는 문화적 다양성」 『중앙아시아연구』 17-2.  
 주수원 2011, 「彌勒倚坐像의 도상적 기원에 대한 연구 -아진타 17굴 <도리천강하> 도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11.

### 2. 중앙아시아

- 강수현 2011, 「단단 - 율릭 회화의 특색과 그 의미」 『중앙아시아연구』 16.  
 김혜원 2010, 「둔황 막고굴 제220굴 <사방정토변>의 해석에 대한 재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9.  
 \_\_\_\_\_ 2011, 「凉州 瞿禾縣 瑞像의 도상에 대한 再考」 『미술사학』 25.  
 조성금 2010, 「吐魯番出土<佛說預修十王生七經變相圖>」 『동양미술사학』 11.  
 \_\_\_\_\_ 2011, 「北庭(傳)西大寺 <彌勒上生經變相圖> 圖像 研究」 『중앙아시아연구』 16.  
 \_\_\_\_\_ 2012, 「위구르인들의 成佛 誓願: 베제클리크 20굴 <毘舍耶藥事變相圖>」 『중앙아시아연구』 17-2.

## 3. 동남아시아

- 강희정 2009, 「푸난(扶南) 불교조각의 연원과 전개」 『미술사와 시각문화』 8.
- \_\_\_\_\_ 2010a, 「6~7세기의 동남아 힌두 미술 - 인도 힌두미술의 전파와 초기의 변용」 『동남아시아연구』 20-3.
- \_\_\_\_\_ 2010b, 「6세기 扶南과 山東의 사르나트 양식 불상 -남방해로를 통한 인도 불교미술의 東博-」 『중국사연구』 67.
- \_\_\_\_\_ 2011a, 「고대 동남아 종교미술에 미친 인도 미술의 영향」 『인문논총』 65.
- \_\_\_\_\_ 2011b, 「머라이언과 박물관: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동아연구』 60.
- 고정은 2010, 「〈아시아박물관 기행〉 베트남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수원나부미』 2-1.
- \_\_\_\_\_ 2011a, 「앙코르와트 제1회랑에 나타난 “32지옥도”의 도상특징과 그 의미」 『강좌미술사』 36.
- \_\_\_\_\_ 2011b,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의 미술을 찾아서」 『수원나부미』 3-2.
- \_\_\_\_\_ 2012, 「동남아시아 불전미술의 성립과 도상특징」 『강좌미술사』 38.
- 구하원 2011, 「전통과 이슬람: 인도네시아 근대 모스크 건축 양식의 이해」 『동아연구』 60.
- 김민규 2010, 「베트남 청화백자의 출현과 전개」 『수원나부미』 2-1.
- \_\_\_\_\_ 2011a, 「동남아시아 도자기에 보이는 중국도자기의 영향: 베트남 타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7-2.
- \_\_\_\_\_ 2011b, 「동남아시아 청동북의 기원과 전개」 『동북아 문화연구』 27.
- \_\_\_\_\_ 2011c, 「문헌에 보이는 미얀마 흑유대호(黑釉大壺, 일명 Martaban Jar)에 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1-2.
- \_\_\_\_\_ 2011d, 「베트남 중부지역 출토 무역도자기: 9·10세기 중국과 서아시아도자기를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8.
- \_\_\_\_\_ 2011e, 「필리핀과 무역도자기」 『수원나부미』 3-2.
- \_\_\_\_\_ 2012a, 「남아시아 오지의 구조와 기원에 대한 연구: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오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9.
- \_\_\_\_\_ 2012b, 「필리핀 산타아타(Santa Ana) 유적출토의 원대 청화백자에 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31.
- 노장서 2009, 「태국의 불교사찰 벽화에 관한 연구」 『수원나부미』 1-2.
- \_\_\_\_\_ 2010, 「머리카락에서 물을 짜내는 지모신 형상의 기원과 변모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0-3.
- 박장식 2009, 「깍구: 빠오족의 불교 유적지」 『수원나부미』 창간호 1-1.

- 배수경 2010, 「란나왕국의 흔적을 찾아서 2: 위양까롱의 도자기」『수원나부미』 2-1.  
배양수 2009, 「독창적인 짜잉싼마이: 베트남 옷칠 회화」『수원나부미』 창간호 1-1.  
유근자 2010, 「보로부두르 대탑의 佛傳 도상」『수원나부미』 2-1.  
주경미 2012, 「고대 동남아시아의 귀걸이 전통과 그 영향」『미술사논단』 34.

[Abstract]

## **Extension of Denotation, and Leap: A Review and Prospect for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2009~2012)**

Lim, Young-ae  
(Gyeongju Univ.)

When there is no solution only in studying Korean art history, there have been many cases that there were solutions found in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In this viewpoint,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have played a meaningful role in the Korean art history for the past four years.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s is that what the academic worlds expect is a meaningful study that deserves attractions from its local academic world.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to be globalized. Needless to say, in order for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to be globalized, it is natural to secure global competitiveness to an extent, but I also believe that a sincere globalization should have ‘communicativeness’ with the world.

From the past 4 years, the denotation of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has been extended greatly. Though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have been developed in quality and quantity, for the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what the researchers of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still need are new views and ways of comprehensive searching, and endeavors of following researchers who adopt and develop previous studies of both domestic and overseas.